'스폰서 검사' 줄소환

박기준 부산지검장 직무서 배제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 전보 조치

'검사 스폰서' 의혹의 진위를 가릴 진상규명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가 이번 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의 줄소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사표를 던진 박기준(51·사법시험 24회) 부산지검장 등 실명으로 언급된 이들이 이르면 이번주에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접대 내역이 적힌 리스트에 거명된 57명의 전·현직 검사도 잇따라 소환 통보를 받을 전망이다.

진상규명위는 27일 오전 8시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활동을 본격화한다.

진상 조사는 우선 건설업자 정모(52)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그가 주장하는 접대의 구체적 내역을 먼저 확보할 계획이다. 접대 장소와 날짜, 액수 등이 일부 적혀 있는 명단을 중심으로 당시 참석자 등 상세한 정황과 이같은 접대가 대가성이 있는 것이었는지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검사 57명만 해도 적지 않은 숫자인데다 정씨가 검사 100여명에게 접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조사단에서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서 정씨 조사는 수차례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한승철(47·사시 27회)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키로 했다.

법무부는 "부산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지만 정확한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 직위를 유지하도록 하되, 이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내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감찰부장 전보와 관련, "사실상 감찰 성격의 진상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 중인 만큼 의혹이 제기된 감찰의 주책임자인 대검 감찰부장을 먼저 전보시켜 대검의 진상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함평 나비축제 인파 25일 제16회 함평나비축제를 관람하러 온 나들이객들이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난타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함평=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금, 봄 맞아?

한달 새 겨울→봄→여름→겨울→여름 '날씨 변덕'
사무실·병원 독감·감기 환자 북적 … 농작물 냉해도

'봄인가 싶으면 초겨울같고, 초여름처럼 느닷없이 더워졌다가 갑자기 눈이 내리고…'

'변덕스런' 봄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요즘 날씨를 보면 정말 봄의 한 가운데에 들어섰는지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다.

4월 들어 광주·전남지역은 매일 10도 이상 일교차가 벌어졌다. 또 최저기온이 0도 내외인 날도 4일이나 됐다. 심지어 지난 14일에는 14년 만에 '4월의 눈'이 내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 20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초여름날씨를 보였다.

한 달 사이에 겨울, 봄, 여름을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트' 날씨로 신체리듬이 깨진 사람들이 늘면서 병원마다 독감환자와 알레르기성 감기환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회사 사무실마다 독감이 확산하고 있으며, 초·중·고교에는 독감으로 결석을 하거나 조퇴하는 학생들이 상당수다.

홍경표 내과 의원 원장은 "독감 환자가 지난 달에 비해서는 10% 이상, 예년에 비해서는 30% 가까이 늘었다"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 때문에 농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들어 평균 기온이 전년 대비 1~2도 가량 떨어지고, 일조시간도 10% 정도 감소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나주 배 재배농가들은 배꽃이 만개한 상황에서 영하의 날씨와 눈이 겹쳐 심각한 냉해로 울상이다. 냉해 때문에 착과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어도 발육 부진과 기형과가 우려된다.

해남지역에서는 논보리 잎색깔이 노랗게 변하고 생육이 저조해지자 아예 보리밭을 트랙터로 갈아 엎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또 딸기와 수박, 애호박, 토마토 등 시설하우스 작물들이 생육이 저조하고 곰팡이병 등 병해를 입어 수확량이 20% 가량 감소한데다 품질도 떨어지고 있어 농가들의 시름이 커가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5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기온변화가 크고 6·7월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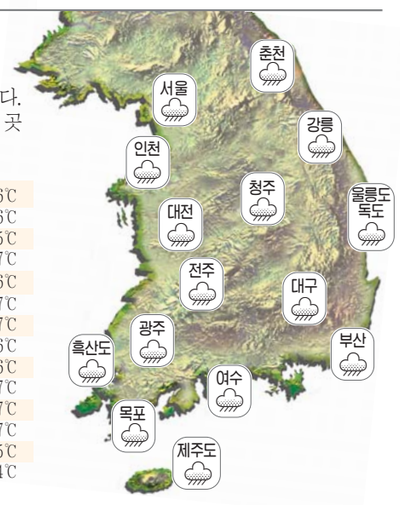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48분 / 해짐 19시 14분 — 달뜸 16시 55분 / 달짐 03시 55분

우산 챙기세요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오겠다. 밤부터는 황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광 주	흐리고비	11/16℃
목 포	흐리고비	12/16℃
여 수	흐리고비	11/15℃
완 도	흐리고비	10/17℃
구 례	흐리고비	9/16℃
해 남	흐리고비	10/17℃
장 흥	흐리고비	10/17℃
고 흥	흐리고비	9/16℃
순 천	흐리고비	10/16℃
영 광	흐리고비	10/17℃
진 도	흐리고비	10/17℃
전 주	흐리고비	10/17℃
남 원	흐리고비	8/15℃
흑산도	흐리고비	11/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먼바다	남동~남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먼바다	남동~남	1.5~2.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먼바다	남서~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5~2.5m
먼바다	남서~서	2.0~3.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높음 주의 높음

	밀물	썰물
목포	00:05 / 12:22	05:30 / 17:50
여수	07:22 / 19:52	01:09 / 13:25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7(화)	28(수)	29(목)	30(금)	1(토)	2(일)
날 씨						
최저/최고	11/14	6/16	6/19	6/21	8/22	9/23

황사비 뚝뚝…

광주·전남 오늘 20~60㎜

광주·전남지역은 26일 오전부터 서해안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려 27일 새벽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중국 서북부와 몽골에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황사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 "26일 자정부터 27일까지 광주·전남지역은 20~60㎜의 비가 내리고 황사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상에서는 돌풍이 불고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요구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8~12도, 낮 최고기온은 15~17도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기상예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종이서류 재판 마감
'전자소송' 오늘 시작

종이서류 재판을 마감하고 소송의 신기원을 열 '전자소송'이 26일 특허법원을 시작으로 도입된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종이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사용자등록을 하면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인지나 송달료 등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합뉴스